##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: 일반부문

## 국외 주요국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정책 현황 분석

## An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olicies in the Building Sector of Major Countries

○정 영 선\* Jeong, Young-Sun

키워드 : 건물부문, 온실가스 배출, 감축 정책, 전망 모형, 국가 감축 목표

Keywords: Building Sector, Greenhouse Gas Emission, Mitigation Policy, Forecasting Model,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

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NDC(국가 감축 목표 기여.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 제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과 협력을 나타낸다. 각 국가는 2025년까지 NDC 3.0이라 불리는 2035년까지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. 국가 감축목표인 NDC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 가의 강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에너지(전환), 산업, 교통, 건물, 기타 등의 각 부문별 충실한 계획과 협력 추진, 이 해관계자의 협업, MRV와 투명한 추진 시스템, 일관성 있 는 정책의 추진과 투자,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제시가 필 요하다. 이 논문은 국외 주요국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 조사 하고 우리의 2035 NDC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.

싱가포르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58.6 MtCO2e로 2030년 배출 정점 이후 35년까지 45~50 MtCO2e로 감축하고, 2050년에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. 건물부문은 그린빌딩 마스터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80%의 그린빌딩 건설, 기후 친화적인 주거건물 지원 프로그램과 최소 에너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.

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2035년에 46%, 2040년에 73%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2025년 2월에 UNFCCC에국가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. 이를 위해 일본이 개발한 AIM(Asia-Pacific Integrated Model) 모델로 국가 온실가스배출 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6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(Hibino, 2024).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,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증진, 전기 사용을

\*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연구위원, 공학박사 (Corresponding author :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, sunj74@kict.re.kr)

이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 연구비 지원 (과제명: 2050 건축·도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)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의 일부임. 과제번호: 20250224-001 줄이고 산업의 구조 조정, 핵 에너지 발전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. 건물부문의 경우, 현존 주택의 단열 개보수, 지역난방 및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사용, 전기화 및 수소 사용의 검토 등을 방안으로 마련하였다.

영국은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81% 줄일 목표를 제시하였다.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(2030 Clean Power Plan)를 수립하였고, 2023년에 1%인 주거건물의 히트펌프(AtW Heat Pump) 공급을 50%까지 확대하고 전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EU는 유럽의 기후 위기 평가 보고서(European Climate Risk Assessment, 2024)를 발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다양한 시책을 논의하여 제시하였다. EU는 유럽 기후법에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년에 적어도55% 감축, 2050년에는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.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고, 재생에너지법을 통해2030년에 32%에서 42.5%로 증가시킬 계획이다. 또한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11.7% 줄일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
우리나라는 2030 NDC를 통해 2018년(727.6MtCO2e) 대비 2030년까지 40%(436.6MtCO2e)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. 건물부문은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화하고 기존 건물의 성능을 강화하여 건물부문 전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정책및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 현재 건물부문은 2018년에 52.1MtCO2e에서 2023년에 44.2MtCO2e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가되고 있다.

## 참고문헌

-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, (2025) 16th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ference, GIR. South Korea.
- 2. Hibino, G., & Masul, T., (2024) Development of AIM and its contribution to policy-making for the realization of decarbonized societies in Aisa, Substantiality Science, 223–239.